

어린이 책꽂이



▲김대중 대통령-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위대한 스승=고(故)김대중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았다. 진실을 중요시하며 약자를 배려하려고 했던 한 인간이자, 민주화를 부르짖은 정치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책백아아이·1만원)



▲루이의 우주선 상상호=세계 최초로 그림책에 소수 민족을 등장시킨 작가 에즈라 잭 키츠의 1983년 작품이다. 버려진 난로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루이와 그 친구들은 여행담을 담았다. 게임이나 장난감 속에서 자칫 '상상력'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준다. <웅진주니어·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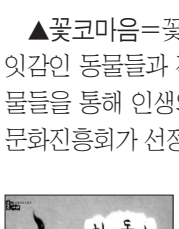
▲안도현 시인이 들려주는 불교 동화 3-왕의 마음을 바꾼 금빛 사슴= '생명'을 화두로 한 이야기들로 인류 최초의 동화로 불리는 '자카타(Jataka)'를 담고 있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을지언정 이야기를 우화로 만들었다. 불교의 교리나 사상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룬다. <파랑새·9천원>



▲칼날의 꿈=원족 다리를 절뚝거리며 비둘기 '원다리'와 눈가에 칼자국이 있는 비둘기 '칼날'의 도전과 모험을 그린 동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로 생활하던 두 비둘기는 예전의 비둘기는 멀리 날 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나간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보여준다. <가교출판·9천500원>



▲생각박빙=생각하는 힘이 팡팡=어린이를 위한 철학책. 핵 문제, 인간 복제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면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으며 귀납법·연역법 등 논리적인 사고 방법을 함께 제시해 스스로 고민하도록 돕는다. 창조론과 박빙론 등 기본 개념을 쉽게 정리했다. <시공주니어·1만2천500원>



▲꽃코미음=꽃을 사랑하는 코블소 '꽃코', 하늘을 날고픈 하마, 먹잇감이 동물들과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호랑이 등 발나 동물들을 통해 인생의 여러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우화집이다. 어린이 문화진흥회가 선정한 좋은 어린이 책이다. <어린이리·8천500원>



▲한지놀이=이종철 전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이 1995년 내놓았던 한지에 관한 그림책. 다나무를 베기부터 물에 뜨고 말리기까지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펼쳐진다. 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쓰임뿐 아니라 창문이나 벽을 장식하는 등 한지의 다양한 쓰임새를 친근하게 소개한다. <보림·1만800원>



▲궁후소년 정비= '열린마음다문화' 시리즈 5권 중국편.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자이자, 한중중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손오씨가 지었다. 중국 '삼국지'를 연극으로 올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역사부터 중국인의 삶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한솔수북·1만1천원>

아득한 고대의 풍경속으로 길을 떠나다

문명의 산책자

이케자와 나쓰키 지음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이자 작가인 이케자와 나쓰키의 '문명의 산책자-대영박물관에서 떠난 13갈래 문명여행'은 영국 대영박물관을 찾았을 때 자신을 사로잡은 26가지 유물의 시원을 찾아 전 세계 13개국을 누비며 쓴 특이한 형식의 여행서다. 자신을 고대에 미친 '파레오(그리스어로 '고대의, 오래된'이라는 뜻) 마니아' 즉 '고대대상광'임을 자칭하는 남자, 작가의 분신이기도한 이 '역사 마니아'의 여정은 런던 대영박물관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품은 의문 '이 찬란한 고대 문화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져 어떻게 옮겨져 이 대영박물관에 놓여 있는 것일까?'의 답을 찾

기 위한 것이다.

'그의 여정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그리스, 이집트, 인도, 캄보디아, 이라크, 이란, 베트남, 터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를, 시간상으로는 그리스 고대 문명으로부터 전율이 깃든 오늘날의 이라크까지 광범한 동선을 그린다. 그에게 있어 세상은 하나의 박물관이다. 책은 단순히 역사 유적을 답사하고 정리한 호사가의 집값은 견본목이 아니다.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 여유 없었다.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 여유 없었다.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 여유 없었다.

책은 단순히 역사 유적을 답사하고 정리한 호사가의 집값은 견본목이 아니다.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 여유 없었다.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 여유 없었다.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 여유 없었다.

고대 문명의 무대가 된 13개국을 누비며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듣고·맛보는 그의 발걸음은 마음에 드는 산책로를 거닐듯 가볍고 즐겁다.

그는 아크로폴리스 에레크테이온의 지붕을 지탱하고 있던 카리아이트 '그리스 처녀상'의 옷자락에서 고대의 아름다운 자태에 감격하고, 캐나다의 원시적인 숲과 바다를 보며 붉은 삼나무로 만든 생동감 넘치는 토텐 기둥

조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신라의 옛 왕들이 달았던 황금빛으로 빛나는 크고 세련된 디자인의 귀고리를 보면 서는 뭘지 모를 끌림과 매력에 휩싸이기도 한다.

또 인도와 캄보디아의 유적에 새겨진 여인상에서 고대의 관능과 요염함을 엿보고, 젊어서 죽은 멜로소 청년의 쓸쓸한 눈빛을 통해 시간을 뛰어넘어 죽음에 대한 탄식을 들었으며, 2천년 전 수메르 왕들이 연회에서 먹었다는 마즈구프 요리를 먹으면서 고대인이 즐겼을 맛과 음식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한다.

이처럼 '산책자'의 인간과 자연, 문명을 사색하는 그윽한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전문적인 역사학, 고고학 지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에서도 지적인 여행 에세이의 독특한 향취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는다. 주인공의 여정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가 여행 전 준비한 자료와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유적에 대한 식견은 깊고도 넓다. 현대와 고대, 동양과 서양, 문화과 철학, 문화와 일상을 넘나드는 호기



세계 최고의 역사 보고(寶庫).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한 미를 자랑하는 유물들이 가득한 영국의 대영박물관.

심 많되 정제되고 균형 잡힌 지성으로 오늘의 문명 속의 어제의 유산과 어제의 흔적 속의 오늘의 발생학을 질문하고 사색한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그의 질문은 아마추어로부터 시작하지만 문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의 대답은 때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뛰어넘는다. 이

런 점에서 책은 문명비평서이기도 하다. 또 여정 중간 중간 계속되는 질문은 그의 지적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고대유물에 사로잡힌 그의 광적인 여정은 앞으로도 꼭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책자·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편 재배 소년의 성장기 그려

이로니, 이디시·정크노트

명지현 지음



카피라이터, 다큐멘터리 작가를 거쳐 2006년 '현대문학'에 '더티 와이프'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명지현씨가 장편 소설과 단편집을 동시에 펴냈다.

소설집 '이로니, 이디시'에는 일제 감점기를 배경으로 삼쌍둥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표제작을 비롯해 인육을 이용한 요리로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룬 '그 속에 든 맛', 삼촌의 동성 애인을 좋아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표준 사이즈' 등 모두 8편의 단편이 실렸다.

모두 기발한 상상력과 유쾌한 입담이 눈에 띄는 작품들이다. 장편소설 '정크 노트'는 아편을 키우는 소년의 독특한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할머니 고추농사를 도우며 살고 있는 중학생 호준에게는 '비밀'이 한가지 있다. 언덕집에 이사는 수상한 아저씨의 밭에서 환각 작용을 가진 진짜 양귀비 재배를 돕게 된 것이다.

아편중독자인 아저씨는 점점 양귀비에 취해 죽은 딸을 보는 등 환상이 시달리고, 호준의 '정크 노트'에는 아편 재배에 관한 전문 지식들이 쌓여만 간다.

<문학동네·각권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서 등 서구문학작품 용어 정리

서양문화지식사전

이재호·김원중 지음



'성서'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문화의 배경이다. 서구의 문학작품과 미술 작품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두 가지는 필수적이다.

울 6월 타계한 이재호(성균관대 영문과) 김원중(성균관대 영문과 교수) 교수가 함께 펴낸 '서양문화지식사전'은 서구 문화의 원천을 이루는 그리스·로마와 '성서', 문학 속 용어와 관용구 2천 300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외국인'으로서 영문학을 공부해 오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두 사람의 체험과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이 책은 기획부터 출간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책은 '한국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2천300여개의 관용구를 가나다 순으로 실었으며 기준에 잘못 알려진 신화의 어원이나 오역에서 벗어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다.

또 '하얀토끼(White rabbit)'가 실제 토끼가 아니라 '잘난 척하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을 뜻함을 소개하는 등 사건의 의미로만 해석할 때 파악하기 어려운 관용구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2004년 이윤기 씨와 그리스 로마 신화 번역을 둘러 싸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현암사·3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초현실주의 거장 달리의 장편소설

히든 페이스

살바도르 달리 지음



살바도르 달리(1904~1989). 초현실주의 거장으로 20세기 회화의 역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그는 글 재주도 뛰어났던 모험이다. 달리가 1944년 발표했던 장편소설 '히든 페이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번역돼 출간됐다.

소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때의 유럽을 배경으로 남녀 간의 맹목적인 사랑을 그렸다.

줄거리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5년간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평평한 밀고당기기를 계속하는 그랑드 살레 백작과 마담 솔랑주의 이야기와 얼굴도 모르는 존 랭폴프와 사랑에 빠진 베로니카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두 이야기는 그랑드 살레 백작을 랭폴프로 착각한 베로니카가 그와 결혼하면서 합쳐지고 파국으로 치닫하면서 끝을 맺는다.

등장 인물의 심리를 프로테스트하고 강렬하게 묘사하는 필력에 달리의 초현실적인 그림이 연상된다.

스스로를 천재라 부르며 평생 겸손과는 먼 인생을 살았던 그는 서문에서 "이 소설의 구조 아래에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본질적인 신화와 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언제나처럼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특유의 자신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문학수첩·1만3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분실
골프회원증
No. J01110825
광주C.C
송옥C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협영으로 인한채권자의 및 주권채출공고
2009년 09월 01일 개회할 주식회사 수안기업(대표이사 변진규) (주)과 주식회사 수안중공업(대표이사 김홍진) (주)은 각각 주주총회에서 (주)은 (주)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주)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 571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여 이 합병에 의거하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주주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개회일(9월 1일) 이내의 관계회사에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05일
"강" 주식회사 수안기업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곡리 29-7
대표이사 변진규
"을" 주식회사 수안중공업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곡리 29-7
대표이사 김홍진

건설업 분할양도·양수공고
주식회사 유원건설은 경인 영유발전 건설(주)를 양수할 임종정(대표이사)은 본분할 양도에 기한 소관청(주)에 분할 양도공고건(건설업분할양도) 제188호 및 건설업(주) 제188호의 규정이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 분할 양도·양수에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채권·채무자 또는 다른 다른 표시권 가질)에 대해 이 공고로써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도·양수 대상인 회사 : 유원건설(주)(제150028호)
2. 양도·양수 일자 : 2009년 10월 05일
3. 양도·양수 대상인 회사 : 유원건설(주)
4. 양도·양수 대상인 회사 : 유원건설(주)
5. 양도·양수 대상인 회사 : 유원건설(주)
6. 양도·양수 대상인 회사 : 유원건설(주)
2009년 09월 05일
주식회사 유원건설 대표이사 백명영

금산공인중개사
T.681-5666 H.011-601-5354
(금호동 서평구역 전, 2호선도리번)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근대편
심성화재발등 4면 광로변
대지
약28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
원,일반상가, 기타 중심
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
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광주최고의 상권, 최고
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토지
▶담양 청평 컨센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남평읍(중흥소피입구) 16,810㎡ 매 4억5천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광주시 요기동 담 3,000㎡ 매 1억3천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무안군 일로읍(계획관리지역) 담 2,437㎡
▶무안군 운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6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가건물
▶용봉동(2층) 매 1억8천(보 5천/월 90)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고시동(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당
▶월출산 인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펜션 부지회적
▶(담양,청평 성업중입)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전 원룸부지, 담양인근무인텔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2008.11월부터 2,000㎡(605평) 이상 건축시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2명 이상
채용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의거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
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
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꼭 채용하여야 등
록 가능
- 또한, 제5조에 의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교육일정 2009. 9. 7.부터(월·수·금) 총60시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국토해양부 지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원 장이명규 교 수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문/의/전/화 www.gred.kr

HOMECON
흥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1-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용량 : 100KW이상 ~ 무제한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